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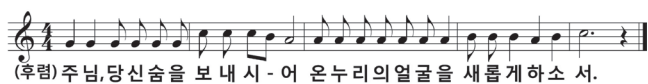


성령 강림 대축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 1ㄱ과 24ㄱㄴ. 29ㄴㄷ~30. 31과 34
(©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2.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 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3.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제 2 독서 코린토 1서 12,3ㄷ~7. 12~13

부속가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가장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일할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도움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굳은마음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밀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덕행공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오늘 두려움 속에 모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는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승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주님의 평화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당신의 숨, 곧 ‘성령’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결국 오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용서의 기쁨과 평화의 기쁨이 자리하게 될 것이라는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성령론』에서 “성령은 생명의 힘을 부여하여 우리 영혼들을 죄의 죽음으로부터 그 영혼이 한때 누렸던 생명으로 되돌려 줍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웃과의 화해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느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오늘 성령께서 내려오십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위로해주시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용서

하기 힘들다고, 삶의 무게가 무겁다고 투정만 부릴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닫힌 마음,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는 성령께서 머무르실 자리가 없습니다. 닫힌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인지, 열린 마음으로 생명과 평화의 기쁨을 만끽할 것인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도록 “오소서, 성령님!”을 큰 목소리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김 홍 민
세베로 신부
울산대리구 성지사목



선하게 살아가는 이들의
감동적인 삶을 대할 때나,
깊은 깨달음의 말씀을 들을 때,
걸핏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
참 부끄러웠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제 마음을 흔들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글. 장경애 마리아고레띠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6.10(월)~11(화)
김홍민 신부(울산대리구 성지사목)
6.12(수)~15(토)
김성양 신부(테레사여자고등학교 교목)

사랑이 월~목 12:15~14:00
있는 세상 진행: 김현지 리나

6.11(화) 특별기획 3부작
- 청년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3편: 청년이 묻고 교회가 답하다
출연: 청소년사목국장 김대성 신부

매주 수요일 [본당 리포터]

출연: 전영은 테레사(만덕), 문민정 스퀘라스티카(꽃바위), 조은미 베네딕다(반여), 백미경 안젤라(수영)

세 번의 믿음의 기회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생의 기회를 세 번 다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이나 한 번만 잡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세 번의 믿음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인 세례성사는 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어려서 유아세례를 받고 신앙의 첫걸음을 디뎠지만 60여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옆길로 새지 않고 신앙 안에서의 신심단체 활동을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며 한 번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현재 어머니 모시고 4대가 함께 한 집에서 살며 큰손녀와 둘째 손녀가 3대째 복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니 세례성사가 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고난수도회 동반 자회에 입회함으로써 종신서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고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될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어느 해 사순절에 2박 3일의 대침묵피정을 하면서 회개와 용서의 삶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피정 중에 침묵하여야 했기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우연히 서고에 꽂혀 있는 책자가 눈에 띄어 방으로 가져와 읽었습니다. 우연인지 다음날 미사 때 제1독서를 봉독하게 되었는데 그 전날 감명 깊게 읽었던 내용이 그날에 제1독서(요나 3,1-10)였습니다. 우연치고는 필연 같은 나에게 필요한 회개와 용서의 삶을 피정 중에 묵상 하라고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기도회에 참가하

여 심령기도도 되지 않고 성령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안수기도 중에 무릎에 올려놓은 손등이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제 마음을 혼돈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고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믿고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성령의 이끄심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저희 신앙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었습니다.

■ 민 훈 기 가브리엘

석포성당 / 시인 mgabriel0929@hanmail.net



『치유기도 :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가톨릭신자용 안내서』

■ 프랜시스 맥너트 / 표중관 신부, 한신자 옮김 ■ 도서출판 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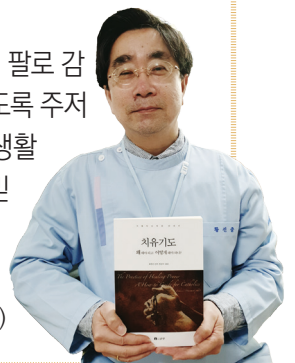
초판본을 선물로 받은 2월 당시 저는 심한 마음고생에 몸도 힘들었습니다. 힘든 그때 위안을 준 이 책을 『내 인생의 책 한 권』으로 소개합니다. 아픈 이를 위한 기도가 믿음에서 치유에 이르는 성서적 근거, 치유기도가 지닌 성사와의 관계성을 담고 있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아픈 이는 병자입니다. 병자는 나아지기를 바라기에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인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신원과 사명을 알려 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시작 때 읽으신 말씀은 당신께서 이루어 내실 치유와 해방을 알리는 복음입니다.(루카 4,18-19)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아파 본 사람은 동병상련을 압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 공감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주십니다.(마태 7,11) 죄로

죽을 자녀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 몸소 육신을 취하시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요한 1,14) 생명의 길을 가르치신 주님은 당신께 믿음으로 다가온 많은 병자들을 거절하지 않으며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십니다. 당장 질병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라자로의 소생처럼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묵상을 하면서 읽어간 『치유기도』는 부활의 기쁨을 더 풍성히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팔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도록 주저 말고 손을 얹어 기도 드립시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녀들이 아버지께 청하듯이 믿음으로 더 자주 구하고, 감사 드리는 치유기도를 안내하며 일독을 권합니다.

■ 황 선 출 세례자요한(메리놀병원 병원장)



← 분심씨

2019년 6월 9일



분심씨

미사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분심드는데, 그러고도 성체까지 모시는 거 보면 짜증폭발.

그러게 요즘 미사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ㅠㅠ



분심씨

꼭 늦게 오는 사람만 늦어, 무슨 정신으로 성당에 오는지...

영성체를 못하게 해야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분심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결국 니도 하느님을 못만났네,

거기다가 형제를 미워하기까지, 쫓쫓..



분심씨

그러니 왜 남들 분심들게 하나요?

예로부터 잔치에 온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내치지 말고, 따뜻한 밥 한술 먹이고 보내라 했는데,

미사라는 잔치에 온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안되겠나?



분심씨

잉?-.-

준비는 안됐지만, 그렇게 모신 성체가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분심씨

..... 😭

그러니 미사 때 쓸데없이 분심들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볼지라^^



분심씨

또 졌다 ㅠㅠ



1867호 2007. 1. 28.
소곤소곤 (장재봉 신부)

성당에서 미사 반주만 하던 나의 2005년도 미국 생활 중에 수녀님의 권유로 찾아온 주일학교 교사의 기회.. 내가 좋아하던 여자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사랑에 눈이 먼 나는 마다하지 않았다. 언어라는 장벽으로 인해 보조교사로 머물러야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물론 보조교사라고 해서 일이 덜한 건 아니었다. 신앙캠프, 피정, 그리고 성삼일 파스카 축제, 성탄제, 졸업 파티 등 행사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매주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의 현실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을 즈음, 주님께서 눈치를 채신 건지 나를 한국으로 보내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르치라는 교리는 안 가르치고 여자 뒤통무늬를 졸졸 따라다닌 나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나는 대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성당으로 복귀하게 된 나는 다시 한번 주일학교 교사 제의를 받게 되었다. 그때가 2013년도였다. 새샘교육을 받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잘 나서 뽐힌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에 주님께서 날 뽑으셨고 세우

셨다는 것을. 교리에 대한 지식도, 의지도 많이 부족했던 나는 교사 생활을 통해 좀 더 주님을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뜻이었음을 새샘교육을 통해 깨달았다. 그때부터 나는 내 정신을 성당에 모두 쏟게 되었다.

그런 기쁨도 잠시 성당에서 나를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겨났다. 나보고 뭐가 그리 잘났냐고, 너무 나댄다고... 충격이 많이 컸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교사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럼에도 그만두지 못한 건 눈앞에 아이들이 밝혀서다. 나도 모르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많이 좋아하고 있었나 보다.

올해 들어서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휴직원을 내고 쉬고 있지만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내년에 다시 힘찬 모습으로 복귀를 할 예정이다. 쉬면서도 아이들의 웃던 모습, 아이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상담해주던 시간,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교리를 알려주던 시간들이 내 머릿속이 아닌 내 가슴 속에서 자꾸만 맴돈다.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느껴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날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다.

성연상 안젤로
삼산성당



돌천별 (돌아온 천국의 별)

교리교사를 그만둔 5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아래의 기간 내 복귀할 시 군속을 이어줍니다.

복귀기간 : 2020.2.28(금) 까지

새샘학교 미수로 경력교사 보수교육

2015년 이전부터 교사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새샘학교를 수료하지 못한 교사가 본 교육을 수료하면 과거 교사활동 기간의 50~60%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제1차 : 6.23(일), 6.30(일) 10:00~18:00

제2차 : 9.29(일), 10.6(일) 10:00~18:00

- 본 교육은 주일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성수예식1



성수예식2



임명장 낭독



작좌1



작좌2



순명서약1



순명서약2

**손삼석 요셉 주교
제5대 교구장 착좌식**
6월 4일(화) 주교좌 남천성당



평화의 인사



축하 꽃다발 증정



축하 영적예물 증정



축사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축사
(한국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축하연



장엄강복

